

“페어플랜, 연기 피해 보상 거부는 불법”

LA수피리어법원 판결...종결된 청구에도 영향

캘리포니아의 주택 화재보험 페어플랜(AIR Plan)이 연기 피해 보상에서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산불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은 또 이미 종결된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스투어트 라이스 판사는 6월 18일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협회의 보상 정책이 주 보험법에 명시된 표준 화재보험 정책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표준 정책은 연기 피해도 '화재로 인한 모든 손실'에 포함되며,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페어플랜은 2017년부터 연기 피해를 보상하려면 '영구적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그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라이스 판사는 "이러한 정의는 과거 정책보다 덜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일부 청구를 거절하는 데 쓰였다"며 해당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페어플랜은 LA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준공공 기관이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가입자는 2021년 25만 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55만 6,000

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판결은 모노카운티의 한 주택 소유주가 2021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했다. 원고의 타호 레이크 인근 주택은 2020년 마운틴 부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며, 페어플랜은 감정인의 추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보상했다.

페어플랜은 2012년부터 연기 피해를 '육안 또는 후각으로 인식 가능한 피해'로 제한했으며, 2016년에는 이를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로 한층 더 제한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수천 건의 연기 피해 청구가 거부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2022년 해당 정책에 대해 시장형위급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페어플랜이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8건의 주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록 불공정 경쟁법 위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향후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해 이를 다시 다룰 계획이다.

보험 소비자 옹호 단체인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백 전무는 "이번 판결은 페어플랜이 연기 피해 청구를 처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임금 소송 디즈니 2억3,300만불 지급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직원 5만명에 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월트디즈니가 디즈니랜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2억3,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디즈니는 6월 21일 애너하임 소재 테마파크의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5만여 명의 소송에서 체불 임금과 이자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랜드 레닉 원고 측 변호인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임금·노동시간 관련 집단소송 합의로, 수많은 디즈니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애너하임 시의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당시 해당 법은 테마파크 기업에 시간당 최소 15달러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디즈니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즈니는 이번 합의에서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벌금, 이자, 법률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직원들에게는 개인별 수령 금액이 기재된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디즈니랜드 대변인은 LA타임스에 "이번 사안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디즈니랜드 전 직원들은 시급 19.90달러 이상을 받고 있으며, 그중 95%는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와 직원 간의 갈등은 2018년 2월 노동조합 단체들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작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많은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고, 같은 해 애너하임 유권자들은 최저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디즈니는 지난해 7월 디즈니랜드 노조와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최저시급을 24달러까지 인상했다.

사진=shutterstock

2025 GO&I

지오앤디교회
Go&Disciple Church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의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의가 살아내리라
에스겔 37: 4-5

주 앞에서 살아내리라

2025 지오앤디 교회 부흥집회
초청목사: 임진혁 목사님 (한국 마가의 다락방 담임)

7.11 (금 7:30 PM) 7.13 (주 7:00 PM)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자세한 정보는 GONDCHURCH.COM 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